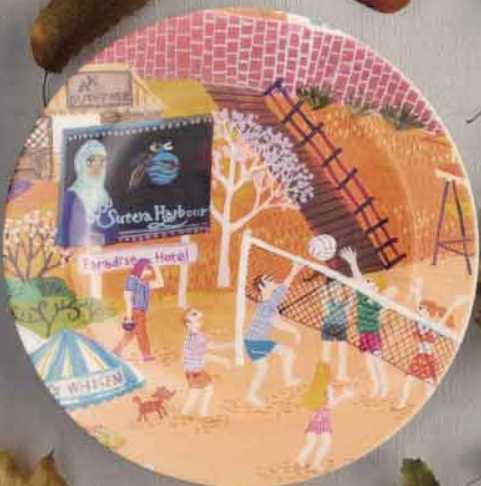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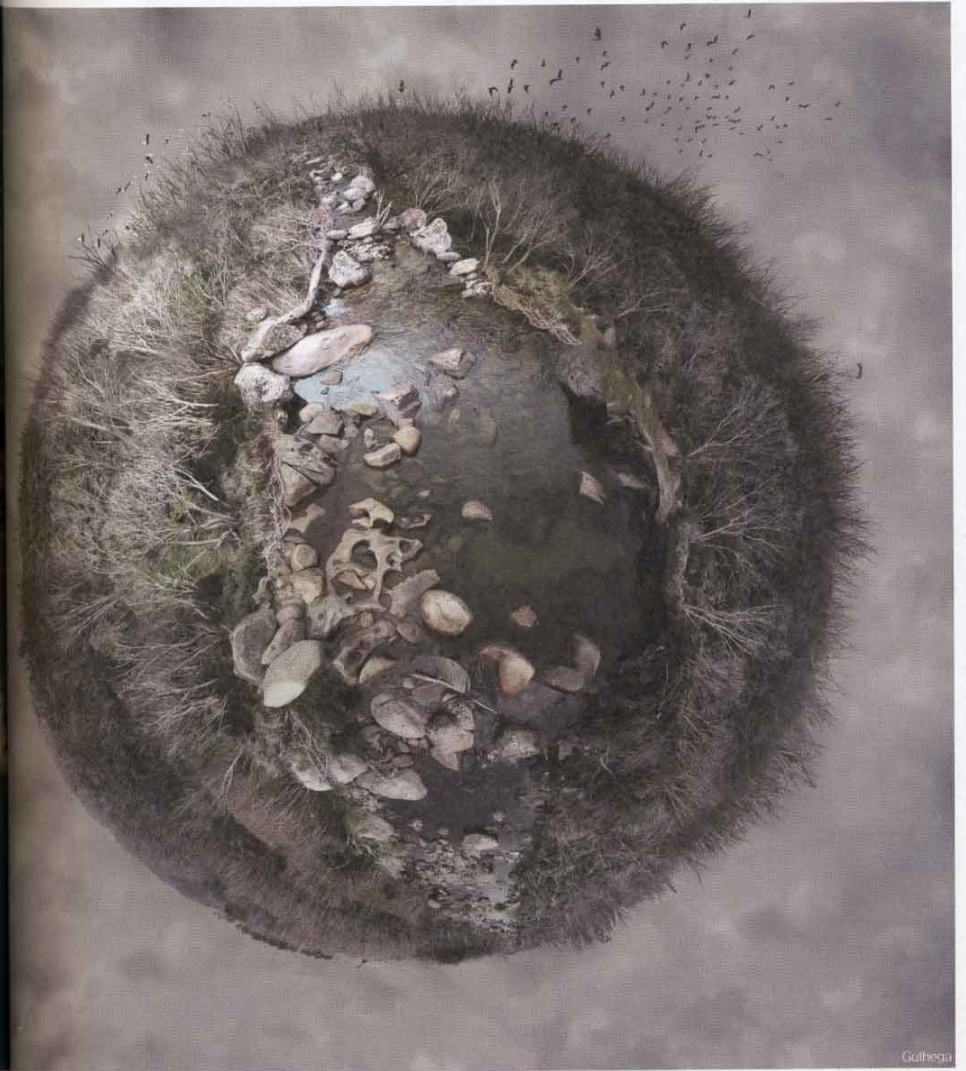
Bar & Dining

DINING
TRAVEL
CULTURE
all around
the world





Danube Lilies II



Guthaga

LOOK AT 캐서린 벨슨 THE WORLD LIKE A PAINTER!

캐서린 벨슨의 사진은 사진이되 초월적인 풍경화이고, 신화적 현대 회화이기도 하며, 세계 각 지역의 운명이기도 하다. 카메라를 사용하는 화가. 그녀는 스스로를 이렇게 규명한다. 디지털 기술로 자연의 풍경을 초현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녀의 작품이 서울에 온다. EDITOR JUNG S.J / COOPERATED BY GALLERY NOW



유목민 캐서린 벨슨 캐서린 벨슨은 1970년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났고, 시드니와 런던에서 예술 공부를 했다. 본래 순수 예술을 공부하던 작가가 시각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런던에서 공부할 때. 이 관심은 단순한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콘자 Conja 라는 TV 광고 제작회사에 취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후 1999년 밀라노에 있는 회사로부터 영화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안받는데, 이것이 캐서린 벨슨이 '유목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직업의 특성 덕분에 밀라노, 런던, 로마, 브뤼셀, 레이퍼비크, 브라티슬라바 등 유럽 전역을 누비며 일하게 된 것. 2008년 전업 작가로 돌아서기 전까지 <올림푸스> <오스트레일리아>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300> 등 영화의 시각 효과 제작에 참여했고, 그 외중에 파트나인 영화 컬리리스트 바트 베레스트와 인연을 맺게 된다. 바트와 함께 벨기에 겐트로 거주지를 이주했고, 2008년 자신만의 작품에 전념하기 위해 전업 작가로 변신을 꾀했다. 처음 그가 인정을 받은 것은 2010년, 첫 시리즈인 <Creation>으로 호주에서 가장 큰 기업예술상 중 하나인 PBS 클라이언트 초이스 상을 받으며 대서특필 된다. 이를 계기로 호주사진센터와 도미니 메르슈 갤러리에서 그녀의 사진에 관심을 가지며 몇 차례 개인전과 단체전을 연다. 여기에 전 호주사진센터 관장인 에리스데이 포스터가 2011년 한국 대구비엔날레에서 아이패드를 통해 친구에게 벨슨의 작품을 보여주어 호평 드를 파나-베이징 포토갤러리 관장이 감명을 받았고 파리와 베 이징에서 전시를 하게 된다. 작년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한미사진미술관에서 개최한 단체전을 통해 처음 한국 관객에게 선보인 후 올해 5월 '갤러리 나우 작가상'을 수상하고 11월에 국내 첫 개인전을 여는 캐서린 벨슨. 고향인 호주에서 시작해 프랑스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름을 알릴 기쁘다. 캐서린 벨슨의 작품이 차츰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작가 자신도 세계 곳곳을 탐험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벨기에 겐트에 거주하지만 최근 들어 알스테르담에서 촬영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도 네덜란드의 더 많은 지역을 탐험할 예정이다. 루마니아 디뉴브 삼각주를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은 다음 작품 시리즈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서면 인터뷰에 답변을 보내던 당시 여행하던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또 한 근시일 내에 작품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관객의 눈을 대신해 지구 곳곳을 누비는 유목민, 이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작품에 관심이 가지 않는가?

디지털 기술로 그린 풍경화 캐서린 벨슨의 사진에는 지구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니다, 지구의 형상을 담은, 불가능한 이미지를 담은 구름다. 수면 밑이 무성한 구름 있고, 동화책 속 한 장면을 구현한 듯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채워진 구름도 있다. 끄트머리는 짙벽으로, 그리고 내부는 바닷물로 채우고 갈매기 떼가 하늘로 날아가는 구의 모습도 보인다. 그 색깔이나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현실의 것인 듯한데 얼핏 보면 꿈에 그리던 이상향처럼 보인다. 호주 출신 사진가(작업 특성상 비주얼 아티스트라 부르는 게 적절하기도 하다) 캐서린 벨슨이 선보이는 작품은 대략 이런 식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촬영되는 이미지만이 아닌 회화 작가로서의



INFORMATION

캐서린 벨슨 Catherine Nelson

Other Worlds

기간 2012년 11월 8일 - 12월 4일
장소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3 갤러리 나우
관람 요금 무료
출품작 총 15점
문의 02-725-2930
홈페이지 www.gallery-now.com

“
 화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디지털의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

시각과 영상 시각 효과 산업에서의 경험을 통해 빚어낸 또 다른 차원의 사진을 그녀는 선보인다. 자연물의 사진과 시각적 시, 디지털 기술이 어우러진 초월적인 풍경화의 형상은 신화적 현대 회화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세련된 형태의 캠페인처럼도 느껴지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 캐서린 벨슨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작품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못박는다. “정작 나는 풍경화를 생각하며 작품을 시작했다. 풍경화가 진화하는 과정에 내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20점의 작품 시리즈가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내 작품을 환경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이더라. 작품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

이다.” 작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해도 우리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무언의 메시지를 느낀다. 그것은 작가가 ‘풍경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했듯 작업 방식이 전통의 사진가가 아닌 화가의 포자선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항상 화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고하기에 그 울림이 더 독특한 것일 수도. 아무튼 이 호주 출신 작가는 화가의 눈과 사고방식을 탑재한 채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예술 작품을 창조해 보여준다. 다행스러운 건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사진을 충분히 저장할 공간조차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작가가 여행에서 70GB의 사진을 촬영해 와도 충분히 저장하고도 남을 정도라는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예술가들 비롯한 사람들은 이를 통해 더 발전된 것을 창조할 수 있다. 캐서린 벨슨의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다.

'2012 갤러리 나우 작가상'을 수상해 11월 국내 첫 개인전을 연다. 2011년 '한국-호주 우정의 해'를 맞아 열린 한미사민미술관의 기획 전시 <Disappeared but Remained>에 작품을 선보인 것 외에 한국 전시는 처음인데, 소감이 어떤가

한미사민미술관에 전시한 작품은 4점이었고, 안타깝게도 개막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래도 갤러리 나우 작가상을 수상해 매우 기쁘고, 첫 한국 개인전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방문하는 것에 호기심이 많은 상태다.

이력부터 말해보자. 런던에서 순수 예술(회화)을 전공하다 시각 효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호주 TV 광고 제작사를 거쳐 영화 시각 효과 제작 팀에서 일했다. 순수 예술로 나가지 않고 시각 효과 쪽으로 첫발을 내디딘 이유가 있다

런던과 시드니에서 페인팅, 드로잉을 공부하는 동안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학업을 마친 후 회사 입사를 원할 때에는 컴퓨터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분야가 매우 새로웠고 흥미진진했다. 그렇게 나는 시드니에 있는 작은 포스트 프로덕션 회사(후반부 작업 전문 회사)에 취업해 아간 근무를 맡았다. 그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 작업으로 인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앞서나가는 매체를 다룬다는 것이 좋았다. 당시 내 가족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일이었다.

<올랑루즈> <오스트레일리아>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다. 그 시기의 당신은 '예술가'로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어떻게 2008년 전업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

2000년에 VFX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했고, 나는 서둘러 영화 시각 효과 분야로 직업을 옮겼다. 그러면서 일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다. 이때가 내가 첫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디지털카메라는 사진을 찍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선사하더라. 나는 이미지를 컴퓨터로 옮겨와 VFX 영화 업무에서 배운 테크닉을 이용해 이미지 향상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가 내가 디지털 예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때라고 보면 된다. VFX 회사는 정말로 흥미로운 곳이고 나는 그곳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그러면서 나 자신만의 아이디어가 쌓이게 됐고, 나만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2008년, 그때가 바로 내 작품에 완전히 전념하기에 적기인 것 같았다.

전공 선택이나 작업 선택을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난 항상 미술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시드니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부모님은 예술계에 종사하지 않았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등 예술 애호가였다. 덕분에 어린 나이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언제나 예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응원받았다. 말하자면 난 항상 예술가가 될 것이라곤 걸 알고 있었다.

작품으로 넘어가 볼까. 이번엔 수상한 갤러리 나우 작가상에 응모한 작품들에 대해 설명해달라

작품을 'Future Memories' 'Nuit Americaine' 'Other Worlds' 'Danube'의 4가지 시리즈로 분류해 응모했다. 이 작품 시리즈들은 행성 형상에 토대를 두고 있어 유사점을 지닌다. 나는 각각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했던 곳을 특별한 장소로 재현해 재창조한다. 나 자신은 이 작품들을 사진이란 매체를 이용한 풍경화라 생각하고 있다.

꽃, 이파리, 콜로버, 새, 나무 등을 포함한 자연물의 사진을 디지털 기술로 합성해, 당신의 말처럼 '풍경화'를 창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풍경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

특별한 계기는 아니고 항상 사진가가 아닌 화가로서 세상을 바라봐왔다. 언제나 창조된 것보다 자연 그 자체에 끌렸고, 현재는 내가 성장한 호주와 가족이 많이 다른 곳(유럽)에서 살고 있기에, 이곳의 계절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것들을 기록하는 중이다.

작품을 살펴보면 주로 동그란 행성 안에 하나의 스토리를 집어넣는 형태가 많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표현한 작품의 경우 여름에는 남반구에 물고래가 뛰놀고, 가을에는 단풍나무 잎으로 행성을 가득 채우는 식인데, 배경으로 행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행성 형상은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차츰 발전시킨 것이다. 한때 거주했던 겐트 Ghent에서 근교의 공원을 산책하면서 브뤼헬 Breughel의 그림들로부터 풍경을 생각했다. 그의 작품 속 겨울 풍경은 내가 산책하던 곳과 유사점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 장의 이미지 안에 많은 시간이 동시대에 일어나는 것처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행성 형태는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행성 형태를 도입해 내가 원했던 하늘, 나무, 호수, 새들의 무리, 심지어 다른 기후들까지 하나의 이미지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인상파 화가들, 특히 모네 Monet의 영향을 받은 작품도 보인다

화가 클로드 모네는 많은 예술가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나 역시 그중 한 명이다. 잘 알려져 있듯 그의 작품은 굉장히 아름답다. 나는 제베니 Giverny에 있는 모네의 정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가 그렸던 백합을 처럼 그의 정원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다. 그가 그렸던 것과 같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다.

당신의 작품은 사진이면서 동시에 회화이며, 그래픽 디자인 길기도 하다. 작품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없이는 이 작품들을 창작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면 된다. 어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같이 카메라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나는 지속적으로 내 장비를 최신식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러면서 결과 역시 차츰 발전하는 중이다.

작품 중 지역명을 제목으로 붙인 것이 꽤 있다. 호주도 있고, 나폴레옹이 유배됐던 섬으로 유명한 엘바 같은 곳도 있고, 오랜 시간 여행의 삶을 살아왔는데,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이 있다

여행을 즐기지만 과거에는 일에 의해 여행지가 결정되었다. 그때는 유목민 같은 시간을 보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훨씬 적게 여행하지만 여전히 여행을 즐긴다. 때때로 나는 루마니아의 다뉴브 삼각주 Danube Delta처럼 목격지가 사진처럼 뚜렷하게 마음속에 기억되는 특별한 여행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간소한 휴가를 위한 여행을 하기도 한다. 물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카메라가 함께해 그 풍경을 렌즈에 담는다.

특정 지역에서 촬영한 특정한 환경의 사진이 작품의 근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어디가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작품을 촬영했던 모든 곳이 매우 즐겁고 좋았기 때문이다. 이 답변을 쓰고 있는 현재는 이탈리아에 있는 사르데냐 Sardegna 섬에 있다. 이곳에서 많은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촬영한 사진들로 새로운 두 가지 작품을 만들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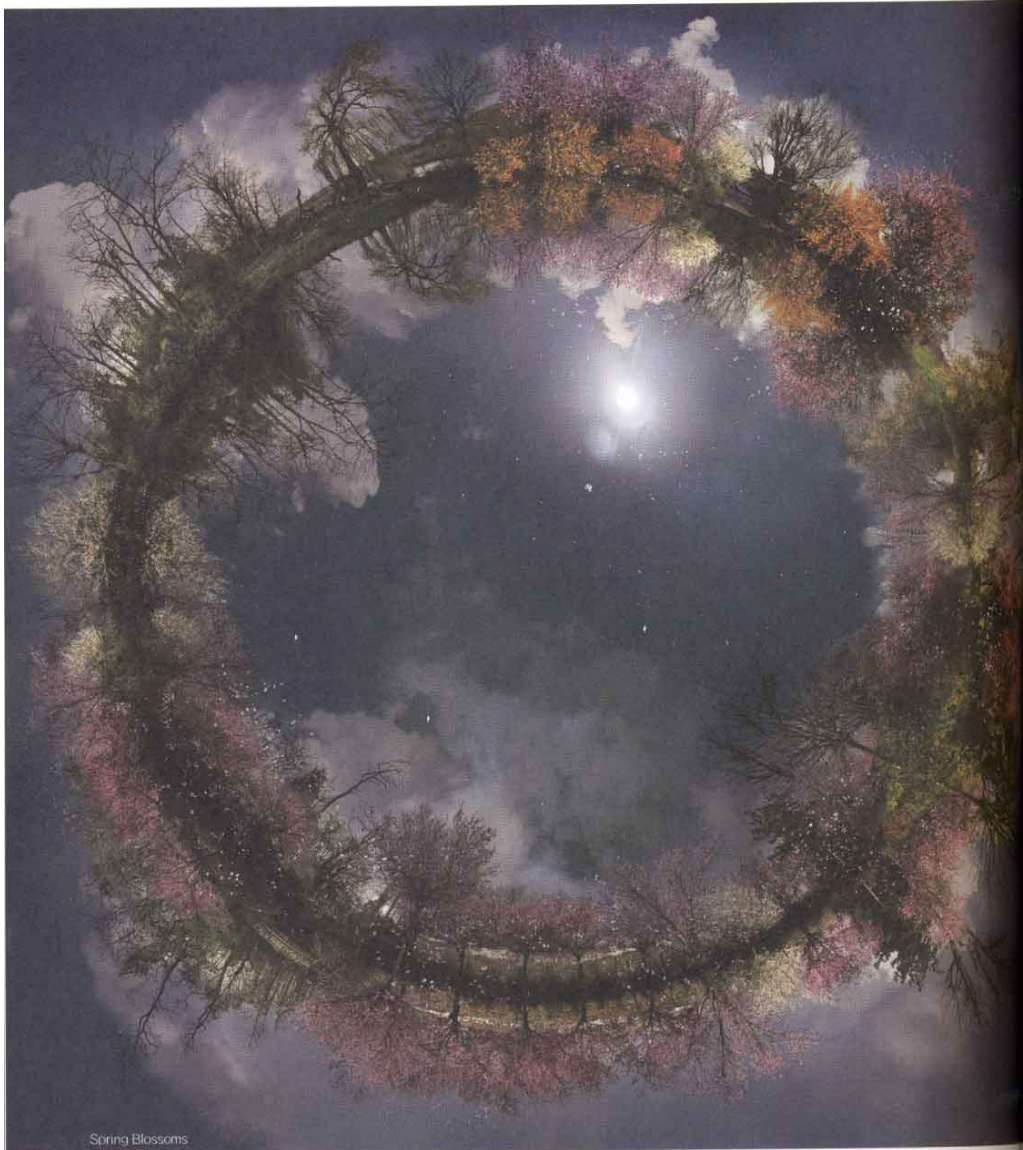
앞으로의 작품 활동이나 인생에서 장기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아스트의 목표가 아닐까. 구체적인 촬영 계획을 말하긴 힘들지만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 최근에는 다시 영상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언젠가는 영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디지털 방식의 사진과 아직 탐구하지 않은 영상 매체를 가미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통해 어떤 감정을 얻길 바라는 작품을 만들고 프린트에 전시하고 나면, 내 일은 스톱되고 대중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내 작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반응하지, 나는 사람들이 작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을 즐긴다. 그들이 반응한다는 사실 자체가 항상 즐겁다! 그들은 작품을 보면서 편지를 느낀다. 예전에도 이탈리아 소녀에게 내 작품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녀는 어떤 작품은 침착하게 만들고 어떤 작품은 흥분된다고 하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그들이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중요한 의미다.



The Kings Garden



Spring Blossoms



Bourgoyen Winter